

#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Mediated Effect of Children's Self-Regulation between Their Prosocial  
Behaviors an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세브란스 어린이집  
교 사 노 미 나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 사 권 연 희

Severance Child Care Center

Teacher : Mi Na Noh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Lecturer : Yeon Hee Kwon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on their prosocial behaviors. The participants were 151 children(aged 5-6) and their mother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ubordinate spheres of 'controlling' and 'playing' i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2) Children's self-regul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prosocial behaviors. (3) When children's self-regulation was controlle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did not show any positive correlations with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 conclusion, children's self-regulation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prosocial behaviors.

**주제어(Key Words)** :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어머니의 양육태도(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자기조절력(self-regulation)

**Corresponding Author** : Yeon Hee Kwo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262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3145 Fax: +82-2-363-8877 E-mail: imkyh100@naver.com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I. 서론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는 친사회적 행동(Ladd & Profilet, 1996)은 자신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 유형으로,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관계를 이끌어주며 인간 삶의 질을 긍정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시켜준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취학 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심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른 시기부터 아동들이 보육시설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집단 보호되고 교육되면서 더욱 높아졌다. 더욱이 최근 들어 아동의 기관 경험의 연령이 점점 더 하향화되면서, 아동은 과거보다 이른 시기부터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등 사회화 경험의 시기가 당겨졌다. 따라서 취학 전 아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아동기 사회성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한 Katz와 McClellan(2001)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이 6세 경까지 최소한의 사회성 발달을 이루지 못한다면 전 생애를 통해 사회적 관계에서 높은 위험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취학 전 5~6세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경험은 이후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인성과 기본생활태도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또래수용 간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박진재, 2002), 아동의 성공적인 사회관계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또래 간 긍정적 수용에 의미 있는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위하여 이익이나 도움이 되도록 하는 자발적 행동을 말한다(Eisenberg & Mussen, 1989). 친사회적 행동의 범주로는 돕기와 나누기를 비롯하여 협력하기, 위로하기, 기부하기, 양보하기 등의 좁은 범주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관심보이기, 배려하기 등의 좀 더 넓은 범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최운정, 이기숙, 1999). 친사회적 행동은 공격적 행동이나 위축 행동과 같은 부정적 행동과는 달리 아동의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을 다루기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아동은 또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며, 나아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로 아동의 성, 연령, 출생순위, 공감 능력 등을 포함하는 개인 내 변인(문연신, 2004; 박경자, 1999; 안라리, 2005; 장영숙, 강경석, 김희정, 2003; 홍혜란, 하지영, 서소정, 2008)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가정 내 부모 변인과 같은 환경 변인들(권연희, 1995; 서동미, 1996)을 살펴보았다.

아동은 출생 후 최초로 관계를 맺게 되는 어머니를 통해 사회화와 학습을 하게 되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은 타인을 대하는 아동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이원영, 1983). 이는 다양한 환경 변인 중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모방이나 개념화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Clark(1997)은 자녀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 어머니가 제공하는 자극, 적절한 환경 및 모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머니는 유아기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최근 들어 아동의 사회화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역할을 가정에서 자녀를 보살피는 관계 지향적 양육의 측면뿐 아니라 아동 발달의 여러 영역에 필요한 기술과 행동을 '가르치는' 양육에 대해 관심을 두어 교사로서의 부모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어머니의 가르치는 양육태도는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아동을 자극하는 어머니의 다양한 전략으로, 아동에게 주변의 사건, 사물과 외부 세계를 설명해주고 친밀해지도록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아동에게 긍정적 행동을 배우고 모방하고 관찰하게 하여 아동의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또래를 포함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관리의 모델링을 제시한다(Bornstein, 2002). 이처럼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양육태도로 의사소통기술, 사회 내에 수용될 수 있는 여러 전략에 대한 적합한 모델링과 교수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자기조절력,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긍정적 행동 증진과 관련 될 수 있을 것이다.

Gardner(1983)는 정서와 사회성의 측면은 유전적인 원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고정적이지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해 사회적 맥락에서 제공되는 교수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아동은 어머니가 제공하는 환경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받게 되고, 어머니의 가르치는 양육태도는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아동의 자기 조절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사회·정서의 측면과도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맥락 요인으로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가르치는' 양육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 양육태도를 '가르치는' 양육태도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살펴보기 보다는 하나의 부모 역할로 알아보았다.

자녀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역할을 좀 더 구체화 하여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은 Cowan, Cowan, Shulz와

Heming(1994)의 연구를 통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부모의 온정과 구조화 행동을 하나의 부모 역할과 합하여 분석할 때는 아동의 공격적 행동과 관련되지 않았으나, 온정과 구조화를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는 부모의 온정이 아동의 공격적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Cowan 외(1994)의 입장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에서 부모의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가르치는 양육태도를 알아보려 하는 본 연구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온정과 구조화의 측면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함으로써 아동의 사회화에 있어서 어머니의 가르치는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의 의의를 제안하였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구체화하여 구분하지 않고 살펴되거나, 온정 및 보살핌과 같은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었다(문연심, 2004; 박분희, 김영숙, 2008; 성숙란, 2007; 이원영, 1983; 이은영, 김경혜, 2005; 장영숙 외, 2003). 이원영(1983)은 어머니가 과보호적일 때 자녀는 퇴행적이며 의존성을 보이고, 거부적일 경우 퇴행성이 보이지만, 어머니가 수용적일 경우에는 높은 사회적 성숙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장영숙 외(2003)도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를 둔 유아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Clark와 Ladd(2000)가 지적한 것과 같이 아동의 또래 수용에 중요한 부모 역할은 정서적 차원을 포함한 관계성 측면이고, 부모-아동 간의 관계성이 아동의 친사회적 성향에 영향을 줌으로써 또래 수용을 가져오지만,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의미 있는 성인의 모델링을 통해 학습된다고 볼 때 어머니의 가르치는 측면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의 개인 특성 변인 역시 이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의미 있는 관련성을 지니는데, 아동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연령, 성 그리고 출생순위 등과 같은 아동의 개인 특성이 친사회적 행동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권연희, 1995; 안라리, 2005; 장영숙 외, 2003; 홍혜란 외, 2008). 아동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외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개인 내 변인으로는 공감 및 조망수용(문연심, 2004), 정서지능 및 자아개념(김규수, 박승순, 권소영, 2003), 자기조절력(김희태, 이임순, 2008) 등을 들 수 있다.

아동의 자기조절력은 이후의 사회, 정서, 인지 능력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기에, 교육을 통

해 형성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Kopp, 1982; Perry, 2002). 김영옥, 홍지명, 김세루와 김권일(2008)에 따르면 아동의 자기조절력은 상황적 요구에 따라 행동을 멈추거나 시작하는 능력, 사회 교육적 환경 내에서 신체·언어적 행동들의 강도, 빈도, 지속시간 등을 조절하는 능력, 바람직한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행동을 지연하는 능력, 외부의 제한 없이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력 있고 융통성 있게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스스로 효율적으로 진정시키는 자기조절력이 높은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낮게 되고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대안 행동을 더 잘 찾을 수 있고, 자신과 타인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조절력은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대인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다.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 김희태와 이임순(2008)은 유아의 자기조절력은 또래 유능성 하위변인 중 친사회성과 높은 상관있다고 하였고, 신현숙(2006) 역시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여 표현할 때 긍정-친사회적 행동이 높아지고 부정적 행동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청조(2008)는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아동의 자기조절력은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아동의 자기조절력은 즉시 또는 한 번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아동기 동안 '외부'에서 '내부'로 전철되는 발달 과정을 통해 점차로 나타난다(Marion, 1999). 즉,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자기조절력이 발달하고 그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성인과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Kopp(1982)는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양육자의 역할과 관련 있을 것으로 지적하였다. Kochanska와 Aksan(199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적절히 통제하는 경우 자녀는 자기 통제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아동은 그들의 어머니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과 행동을 모방하면서 사회화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이 좌절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거나 참아내는 행동을 보인다(Beaty, 200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자기조절력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통해 사회화 되는 과정에서 발달해가며, 이러한 자기조절력의 개인차는 아동이 기관에서 또래나 다른

성인들과의 관계에서 친사회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력 및 친사회적 행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이은영, 김경혜, 2005; 장영숙 외, 2003)만을 살펴보거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력의 관계(권수정, 2005; 김혜경, 2005)만을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김영옥 외(2008)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적 능력을 살펴보았으나, 이 연구 역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력의 관계, 어머니 양육태도와 사회적 능력의 관계,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이 세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어머니 양육태도와 자기조절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태도를 가르치는 역할을 강조한 교사로서의 어머니 양육태도의 관점으로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사회화에 있어서 어머니의 구체적인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어머니의 가르치는 역할을 강조하는 교사로서의 어머니 양육태도로 살펴보고, 이것과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들 변인 간의 상호관련성을 기초하여 각 변인이 어떤 방식으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즉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자기조절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는지를 살펴본 본 연구는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선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는 아동의 자기조절력에 따라 달라지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5곳의 만 5세 유치반 아동 151명(남아 80명, 여아 71명)과 그들의 어머니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 아동은 사회적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므로(박진재, 2002), 이 시기에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긍정적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는 것은 이후 원만한 사회관계형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 2. 연구도구

#### 1)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Strom(1995)의 「교사로서의 부모」 양육태도 척도(Parent As A Teacher: PAAT)를 진선미(2000)가 번안한 것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PAAT는 아동의 특정한 행동에 대해 부모가 갖고 있는 가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 = 151)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아동 연령	만 5세	55(36.4)	모의 연령	20대	4 (2.6)
	만 6세	96(63.6)		30대	126(83.4)
아동 성별	남	80(53.0)		40대	21(13.9)
	여	71(49.0)	모의 학력	고졸	61(40.4)
아동 출생순위	첫째 둘째 셋째	75(49.7) 64(42.4) 12 (7.9)		초대졸	30(19.9)
				대졸	44(29.1)
			대학원이상	16(10.6)	
아동의 형제 수	1명	21(13.9)	모의 취업	전일제	75(49.7)
	2명	112(74.2)		시간제	18(11.9)
	3명	16(10.6)		없다	58(38.4)
	4명	2 (1.3)	가구별 월수입	250만원 이하	26(17.2)
아동의 형제 수	1명 2명 3명 4명	21(13.9) 112(74.2) 16(10.6) 2 (1.3)		250~350만원	38(25.2)
				350~450만원	26(17.2)
			450~550만원	19(12.6)	
			550만원 이상	42(27.8)	

치, 기준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다음의 5개 하위 영역(창조성, 좌절, 통제, 놀이, 교수/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창조성 영역은 부모가 자녀의 창조적 발달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둘째, 좌절 영역은 자녀양육에 있어 경험하게 되는 좌절에 대한 인내심과 자녀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셋째, 통제 영역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자녀의 의사 결정에 대해 허용하고 존중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넷째, 놀이 영역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있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야기꾸미기와 역할놀이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해주며, 놀이를 학습방법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이해도를 나타낸다. 다섯째, 교수/학습 영역은 가정 내 학습 환경 제공과 더불어 자녀를 위한 교수/ 학습 과정을 촉진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모의 지각 정도를 설명한다.

각 하위영역마다 10개씩 문항이 연관이 되어 총 50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결과 문항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취학 전 아동의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된 4문항(예, 나는 아이가 잘 배우지 못할 때 야단친다)을 제외하여 총 4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의 특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하위 영역별 Cronbach  $\alpha$  계수는 창의성 영역 .61, 좌절 영역 .61, 통제 영역 .63, 놀이 영역 .65, 교수/학습 영역 .59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자기조절력

아동의 자기조절력 검사 도구는 이정란(2003)이 개발한 검사 도구에 기초하여 김화자(2008)가 교사용 평정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점검' 요인의 하위 구성요인인 '자기평가', '자기결정' 및 '자기통제' 요인의 하위 구성요인인 '행동억제', '정서성'의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조절력을 아동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  계수는 .95이었다.

3)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Weir와 Duveen(1981)의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PBQ)를 권연희(1995)가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교사용 친사회적 행동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유아가 또래와 물건을 나누어 쓰거나, 도와주는 행동,

교사와의 동조성, 감정이입 능력을 묻는 3개의 하위요인, 즉 돕기 행동, 배려하기 행동, 협동하기 행동으로 구성된 총 18문항 척도이다. 교사는 유아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Likert식 3점 척도로 평정(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약간 그렇다: 1점, 확실히 그렇다: 2점)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Cronbach  $\alpha$  계수는 .90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돕기 .71, 배려하기 .79, 협동하기 .78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어머니 양육태도 질문지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8년 12월초에 만 5세 유치반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도구의 수정·보완을 거친 뒤, 본 연구의 조사는 2008년 12월 말에 서울시와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 5곳에 다니는 유치반 아동 151명과 그들의 어머니 151명, 담임교사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용 질문지는 기관의 교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하였고 교사를 통해 회수하였다.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 측정을 위하여 주교사들에게 평정 척도 실시상의 유의점을 주지시킨 후 어머니 질문지가 회수된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사용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어머니 양육 태도 질문지는 총 173부가 배부된 후 응답하지 않았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질문지를 제외한 151부가 수거되어 회수율 87%를 보였다. 총 151명의 자료에 대하여 SPSS WIN 12.0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통제된 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적률상관계수와 비교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력 및 친사회적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성에 따라 두 집단 간 평균 점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1~4점 문항 평균으로 전환하였을

〈표 2〉 아동의 성에 따른 측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결과

변인	통계치	전체	남아(n = 80)	여아(n = 71)	t
		M(SD)	M(SD)	M(SD)	
어머니의 양육태도	창조성	2.93(.30)	2.91(.28)	2.95(.31)	-.64
	좌절	2.62(.26)	2.61(.24)	2.63(.29)	-.45
	통제	2.83(.28)	2.82(.29)	2.84(.26)	-.37
	놀이	2.77(.22)	2.76(.23)	2.78(.22)	-.77
	교수/학습	2.74(.26)	2.75(.28)	2.72(.24)	.85
자기조절력	총점	3.51(.62)	3.37(.57)	3.68(.64)	-3.07**
친사회적 행동	돕기	1.10(.49)	1.03(.46)	1.17(.51)	-1.83
	배려하기	1.16(.42)	1.09(.40)	1.24(.43)	-2.28*
	협동하기	1.34(.42)	1.31(.41)	1.37(.44)	-.88
	총점	1.20(.40)	1.15(.38)	1.27(.41)	-1.88

\* $p < .05$ , \*\* $p < .01$

때, 하위 영역별 평균점수는 2.62~2.93이었다. PAAT 개발자인 Strom(1995)은 평균점수가 2.5점 이상이면 해당 영역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양육태도를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모든 영역에서 2.5점 이상으로 중간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었으며, 자녀의 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아동의 자기조절력 평균 점수는 3.51로 1~5점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자기조절력이 높은 편이었다. 여아( $M = 3.68$ )가 남아( $M = 3.37$ )보다 높은 자기조절력을 보였다( $t = -3.07, p < .01$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0~2점의 3점 척도 문항 평균으로 전환하였을 때, 전체 평균은 1.20으로, 중간보다 약간 더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하위영역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배려하기 행동( $t = -2.28, p < .05$ )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영역 중 배려하기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의 점수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이후 상관 분석에서 아동의 성을 구분하지 않고 살펴보았다.

## 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통제 및 놀이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통제  $r = .13, p < .05$ ; 놀이  $r = .14, p < .05$ ).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통제를 적게 하고 의사결정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양육태도 및 아동발달에 미치는 놀이의 중요성과 영향을 알고 권장하는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그들의 자녀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였다.

각각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 태도의 통제

〈표 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 분석 결과

변인	친사회적 행동				
	돕기	배려하기	협동하기	총점	
어머니의 양육태도	창조성	.11	.09	.03	.08
	좌절	.07	.02	.06	.06
	통제	.13*	.07	.14*	.13*
	놀이	.11	.14*	.12	.14*
	교수/학습	-.12	-.02	-.10	-.08

\* $p < .05$

영역은 아동의 돕기 행동( $r = .13, p < .05$ ), 협동하기 행동( $r = .14, p < .05$ )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놀이 영역은 아동의 배려하기 행동( $r = .14, p < .05$ )에서 정적 상관이 있었다.

## 3.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이 아동의 자기조절력은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 $r = .56, p < .001$ )을 보였다. 하위 영역별로도 돕기 행동( $r = .42, p < .001$ ), 배려하기 행동( $r = .53, p < .001$ ), 협동하기 행동( $r = .56, p < .001$ )은 자기조절력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고,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돕기 행동, 배려하기 행동, 협동하기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 분석 결과

변인	친사회적 행동			
	돕기	배려하기	협동하기	총점
자기조절력	.42***	.53***	.56***	.56***

\*\*\* $p < .001$



4.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가 자기조절력에 의해 매개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Baron과 Kenny(1986)에 따르면, 매개변인이란 어떤 준거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의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주는 변인이며, 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에 상관이 있어야 하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과도 상관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과 종속변인도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 독립변인 효과가 감소해야 하며, 만약 독립변인의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는 완전한 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처음의 세 조건을 만족하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즉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기조절력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하며,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하며, 셋째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어야 한다. 앞선 상관 분석 결과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통제영역과 아동의 자기조절력 및 친사회적 행동,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놀이영역과 아동의 자기조절력 및 친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가 자기조절력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조절력을 통제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부분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이를 통제하기 전의 적률상관계수와 비교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통제 영역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이들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통제를 적게 하고 의사결정 기회를 주면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증가하고, 이러한 아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친사회적 행동,

〈표 5〉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통제 영역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적률상관계수와 부분상관계수

변 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통제영역)	
	적률상관계수	부분상관계수 (자기조절력 통제)
친사회적 행동	돕기	.13*
	협동하기	.14*
	총점	.13*
		.08
		.08
		.07

\*p < .05

〈표 6〉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놀이 영역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적률상관계수와 부분상관계수

변 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놀이영역)	
	적률상관계수	부분상관계수 (자기조절력 통제)
친사회적 행동	협동하기	.14*
	총점	.14*
		.06
		.05

\*p < .05

특히 돕기와 협동하기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표 6〉은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놀이 영역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조절력이 이들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어머니가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놀이를 권장하는 것은 아동의 자기조절력을 키우고, 자기조절력이 높은 아동이 교사에 의해 친사회적 행동, 특히 협동하기 행동을 많이 한다고 평가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자기조절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대상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성에 따른 차이를 보았을 때,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는데, 이는 아동의 성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권연희(1995), 안라리(2005), 장영숙 외(2003)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박경자(1999), 홍혜란 외(2008)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와 같이 아동의 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일관성 없는 연구 결과들은 각 연구에서 사용한 친사회적 행동의 측정 방법의 차이에 근거하지 않나 유추해 볼 수 있다. 교사로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Strom(1995)이 제시한 평균 점수 2.5점보다 높게 나타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대체로 중간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진선미(2000)의 연구결과와는 맥락을 같이 한다. 하지만, 교사로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위영역 중 좌절, 교수/학습에서 남아의 어머니의 경우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높으며, 교수/학습과정을 촉진하는 자

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전귀연과 김수경(2005)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동의 자기조절력은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의 자기조절력이 남아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아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며,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서 자기조절력을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이경님, 2001; Kendall & Wilcox, 1979)와 일치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통제 영역 및 놀이 영역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자녀의 의사결정에 대해 허용하는 수준이 높으며,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양육 태도를 지닐수록 그들의 자녀가 유아교육기관과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고 비통제적일 때 아동이 더 바람직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나타냈다는 연구(장영숙 외,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이은영, 김경혜, 2005)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생활에 제한적 범위를 설정해주고 이를 지키도록 제안하는 태도를 보일 때,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김영옥 외, 2008)와 맥을 같이 한다.

아동이 보상과 강화와 같은 환경적 결과에 의해 자신의 사고나 감정을 조절하나, 차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학습을 통해 타인의 기대나 지시, 환경적인 압력이 없이도 친사회적인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Bandura, 1977). 이러한 학습은 아동에게 유의미한 타자인 어머니의 모방과 모델링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학습(Beaty, 2001)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자녀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적절한 통제로 자녀의 자신감과 안정감을 강화시켜 주고, 합리적인 지도로 탈 중심화를 촉진시켜 사회적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어머니 양육태도를 통해 아동은 사회적 맥락 내 대인 간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실행모델을 가지게 되고 이를 또래 간 행동 시 적용하여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련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놀이영역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놀이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권장할수록 아동은 놀이의 기회가 많으며, 놀이 중 대인간의 상호작용을 연습하게 되고 역할 모델인 어머니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이 증진된다고 할 수 있다. McDonald와 Park(1984)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놀이에서 정서적 표현을 다양하게 경험한 아동일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교사가 평정한 사회적 능력 및 인기도 높았는데, 이는 놀이를 통한 빈번한 접촉이 아동에게 타인을 협조적으로 수용하고 반응하는 연습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성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Vygotsky(1987)는 아동이 역할 놀이에서 성인의 도움을 받으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지적하면서 발달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놀이를 통한 학습과 발달의 사회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놀이를 학습 방법으로 생각하고 격려하며 가르치는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이들의 자녀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시 놀이에 참여하는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 놀이에 가입하는 행동을 좀 더 능숙하게 하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이 놀이 활동에 참여하여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고 활용하는 기회와 경험을 통해 사회적 기술과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킨다는 선행연구(최세민, 2008) 결과를 고려할 때, 어머니의 이러한 양육 태도는 아동에게 놀이 기회를 더 많이 제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필요한 놀이 기술들을 배우면서 사회에 수용되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친사회적 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적절히 조절하고,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할수록, 아동은 돕기 행동, 배려하기 행동, 협동하기 행동을 많이 하였다. 이는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능력과의 높은 관련이 있다(김영옥 외, 2008; 양옥승, 이정란, 2003)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경우 또래와의 상호작용 행동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들(김현나, 이경님, 2008; 홍혜란 외, 2008)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대인관계에서 적합한 방법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많은 아동은 친사회적이며 사회적으로 유능하고(Eisenberg et al., 1996),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친사회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김향순, 2007),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능력의 높은 상관으로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사회적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임을 보여준다고(황미영, 2008) 보고한 선행연구들에 비춰볼 때, 자기조절력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며,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또래와 원만하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동이 내면화된 사회적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내적인 정서를 억제하고 순응하는 능력과 외적 행동에 대한 통제 및 자신의 충동성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을수록 이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시 상황에 맞춰 행동하고 주도적으로 놀이나 활동을 먼저 제안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능력을 지닌다. 또한 또래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일 것이며, 이는 나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 인기가 많고 또래를 잘 사귀는 능력과 관계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본 결과, 자기조절력을 통제하였을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더 이상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통제를 적게 하고 의사결정 기회를 주고, 놀이를 권장하는 양육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계되지만 이러한 관계는 직접적이기 보다 아동의 자기조절력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의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면서 양육하고, 동시에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놀이를 학습방법으로 생각하며 양육할수록 자녀의 자기조절력은 발달하고, 이러한 자기조절력은 또 다른 사회적 맥락인 유아교육기관에서 아동이 또래와 교사에게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연심(2004)은 부모-자녀 관계 유형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유아의 공감 능력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간지향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유아의 공감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공감은 다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킨다고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떤 일이나 놀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의 진행 상황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태도로 양육할 경우, 어머니의 일관된 한계 설정과 이를 지키도록 제안하는 기대 행동은 아동 행동의 모델이 될 것이고(Sroufe, 1996), 이러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아동의 자기조절력 발달에 영향을 주어 이를 통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은 놀이를 하면서 제한하고, 서로의 의견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확장시키고,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Katz & McClellan, 2001). 따라서 아동은 놀이 속에서 타인의 정서 이해하기,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안적인 반응 익히기, 적절한 반응에 대한 역할 연습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적 기술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야기꾸미기와 역할놀이 등에 긍정적으로 참여하여 아동과의 놀이를 통해 적절한 모델링을 제공한다면 아동은 타인에게 협조적으로 수용하고 반응하는 사회적 기술의 연습과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되어 자기 조절력을 발달시켜 나가게 될 것이며, 이는 기관에서 또래와 다른 성인에게 친사회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력에 영향을 주고, 자기조절력이 아동의 대인문제 해결능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이 청조(2008)의 견해와 입장을 같이 한다. 즉,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통해 사회화되면서 관련되지만, 이는 직접적이기 보다 아동의 자기조절력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련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유아기에 자신을 이해, 수용,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고 타인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중요하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일관되게 한계설정을 하고 의사결정의 기회를 더 많이 주며, 놀이를 권장할수록 아동은 자기조절력을 학습하고 수행하게 되어 이것이 다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자기조절력에 의해 매개됨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조절력은 유아기에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교사로서의 어머니 양육태도와 관련된다. 따라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위해 자기조절력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고양하고 지지하는 것이 요구되며, 특히 교수적 차원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행동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취학 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중요한 양육 목표로 설정하고 어머니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회관계 형성에 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게 하고, 이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위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를 요약하면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교사로서의 어머니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사회화에 중요한 어머니 양육태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기조절력 및 친사회적 행동의 세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들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조절력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더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교사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조절력을 평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동일한 평정자의 편견이나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자연 관찰이나 또래 평정,

실험에 의한 방법 등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 양육 역할에서 아버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로 대상 표집 수가 제한되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전국 단위의 더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추후 연구를 실시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상관관계에 기초한 연구이므로 결과를 이해할 때 양방향 관계의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취약 전 아동을 대상을 가르치는 관점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살펴본 점,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자기조절력의 역할을 살펴본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권수정(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연희(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규수, 박승순, 권소영(2003). 유아의 정서지능과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8(1), 253-270.  
 김영옥, 홍지명, 김세루, 김권일(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05-228.  
 김향순(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조절능력 및 친구 간 갈등해결 전략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현나, 이경남(2008). 성별에 따른 유아의 기질, 정서조절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유능성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1-12.  
 김혜경(2005). 어머니의 부모역할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화자(2008). 자기주도적 산책과 길찾기 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지리개념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희태, 이임순(2008). 가족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과 또래 유능성.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1), 1-21.  
 문연심(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

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115-143.  
 박경자(1999).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7(1), 79-89.  
 박분희, 김영숙(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유아의 정서지능과 유아의 사회성간의 관계. **아동교육**, 17(4), 143-154.  
 박진재(2002).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동미(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숙란(2007). 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신현숙(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안라리(2005).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발달,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양옥승,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력 관련 변인간의 관계 분석. **교육방법연구**, 15(2), 143-159.  
 이경남(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아동의 사려성, 자아개념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2), 97-110.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은영, 김경혜(200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0(1), 105-119.  
 이청조(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 자기조절력, 사회적 능력, 사회지능이 유아의 대인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영숙, 강경석, 김희정(2003). 유아의 연령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24(4), 41-53.  
 전귀연, 김수경(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교사로서 부모』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1), 35-51.  
 진선미(2000). 영재 유아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세민(2008). 구조화된 사회적 놀이가 발달지체유아의 친사

- 회적 행동과 비사회적 행동에 미친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 17(2), 81-90.
- 최윤정, 이기숙(1999). 그림동화책 읽어주기와 토의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추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275-291.
- 홍혜란, 하지영, 서소정(2008).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관한 논문-유아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및 기질, 정서 지능과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사회화 전략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7(6), 15-33.
- 황미영(2008). 어머니의 통제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력 간의 조화적합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ndura, A.(199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aty, J. J.(2001). *Prosocial guidance for the preschool child*. Prentice-Hall. **유아를 위한 친사회적 행동 지도**. 이기숙, 강숙현(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년 원저발간).
- Bornstein, M. H.(2002).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Mahwah, NJ: Erlbaum
- Clark. B.(1997). *Growing up gifted*(5th ed.). Upper Saddle River, NJ: Simon & Schuster.
- Clark, K. E., & Ladd, G. W.(2000). Connectedness and autonomy support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Links to children's socioemotional orien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85-498.
- Cowan, P. A., Cowan, C. P., Shulz, M. S., & Heming, C.(1994). Prebirth to preschool family factors in children's adaptation to kindergarten. In R. D. Parke & S. C. Kellam(Eds.), *Exploring family relationships with other social contex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Eisenberg, N., Fabes, R. A., Karbon, M., Murphy, B. C., Wosinski, M., Polazzi, L., et al.(1996). The relation of children's dispositional prosocial behavior to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974-992.
- Eisenberg. N., & Mussen, P. H.(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dner, H.(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 Katz, L. G., & McClellan, D. E.(2001).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Washington, D. C.: NAEYC. **어린이들의 사회적 능력 배양: 교사의 역할**. 홍용희(역). 서울: 양서원. (1997년 원저발간).
- Kendall, P. C., & Wilcox, L. L.(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7(6), 1020-1029.
- Kochanska, G., & Aksan, N.(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s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 Kopp, C. B.(1982). Antecedents of self 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Ladd, G. W., & Profilet, S. M.(1996). The child behavior scale: A teacher-report measure of young children's aggressive, withdrawn, and prosocial behaviors. *Developmental Psychology*, 32(6), 1008-1024.
- Marion, M.(1999). *Guidance of young children*(5th ed.). NY: Macmillan.
- McDonald, K., & Park, R. D.(1984). Bridging the gap: Parent 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Perry, N. E.(2002). Promoting nonviolent behavior in children. *Scholarstic Early Childhood Today*, 16, 26-29.
- Sroufe, L. A.(1996). *Emotional development: The organization of emotional life in the early year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om, R. D.(1995). *Parent as a teacher inventory*. Bensenville. IL: Scholastic Testing Service.
- Vygotsky, L. S.(1987). Thinking and speech. In L. S. Vygotsky, *Collection words*(Vol. 1) (R. Rieber & A. Carton Eds; N. Minick, Trans.). New York: Plenum. (Original works published in 1934, 1960).

접 수 일 : 2009년 12월 29일

심사시작일 : 2010년 1월 6일

게재확정일 : 2010년 2월 11일